

설명절 추도예배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 송 246장 다 갈 이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 그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추모하는 이야기 다 갈 이

고인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어른신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기도 문 다 갈 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713-51 / www.gll.kr
갈릴리교회 02)993-9851 fax: 02)993-9850

인도: 신앙세대주

예배로부름 인도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님을 추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본문 **히브리서 1:13-16** 다 같이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 본향을 찾아가는 삶 인도자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전국의 도로는 귀성 인파로 북새통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돌아갈 천국 본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수 최희준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왔다 가는 길...” 요즘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낯선 땅이고 그들은 모두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별 상관없이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종말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분명 육신은 죽으면 흠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 뒤에 가야 할 고향이 있으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가족들은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고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본향에 들어가는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본향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본향을 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덕 담 말은이

(가족 중 큰 어른의 덕담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 송 552장 다같이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설명절 가정예배

조용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713-51 / www.gll.kr
갈릴리교회 02)993-9851 fax: 02)993-9850

인도: 신앙세대주

조용한기도 다 같 이

“다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설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성 경 본 문 여 호 수 아 24:15 다 같 이

-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
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말 씬 선 택 인 도 자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둘러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은 민족의 큰 절기이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
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
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행복과 축복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
어남으로부터 죽음 사이에 언제나 선택이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부터 중요한 일들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어
떤 것을 선택하는가”이며, 또한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선택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정착하여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하필 오늘
택하라고 선택을 종용할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
린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
래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의 결과는 오늘 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
의 결과가 미래의 내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일의 결단 혹은 과거의 결단이
아닌, 바로 지금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선택하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가장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만약”입니다. “만약”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쩌나
염려하여 우물쭈물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가
나안의 토착신이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
할 것인가? 아니면 피조물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
명을 결정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아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때 올 한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